

“우리 개는 안 물어요”...8년째 반복되는 ‘목줄 미착용’

2018년 3월 동물보호법 개정·9월 시행
과태료 20만~50만원 대폭 상향 불구
광주 지역 공원 등 곳곳서 ‘오프리쉬’
송정은 교수 “펫티켓 문화자리잡아야”



목줄 착용 등 반려견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8년이 지났지만 광주 도심 곳곳에서는 여전히 위반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18일 광주 광산구 황룡천수공원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채 주인과 산책 중인 반려견. /이연상 기자

목줄 착용 등 반려견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를 강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8년이 지났지만, 광주 도심 곳곳에선 여전히 위반 행위가 목격되며 이로 인한 시비 및 다툼도 이어지고 있다. 19일 농림축산부 등에 따르면 2018년 3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고 같은 해 9월부터 시행되면서 반려견에게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는 ‘오프리쉬(Off-Leash)’ 행위의 과태료가 기존 5만~10만원에서 20만~5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이번 개정은 2017년 9월 한 유명인의 반려견이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물어 사망케 한 사고를 계기로 이뤄졌다.

개정안에 의하면 3개월 미만의 반려견을 직접 안아서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주택이나 외부 산책로, 공원 등 모든 공공장소에선 2m 이내의 목줄을 착용시켜야 한다. 이 같은 법적 의무가 강화된 지 올해로 8년째를 맞았지만, 광주 곳곳에선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반려견을 종종 볼 수 있어 개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전날 오후 7시께 광주 광산구 황룡천수공원 일원에선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채 주인과 함께 산책 중인 반려견 여러 마리가 보였다. 목줄을 착용한 채로 주인과 속도를 맞춰 걷는 반려견도 있었지만, 한참 떨어진 곳에서 홀로 풀밭과 트랙 위를 뛰어다니는 개들도 다수였다.

홀로 뛰어다니는 반려견을 본 다수의 행인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이었지만, 갑작스레 다가온 ‘불청객’에 황급히 몸을 피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에 견주가 곧바로 반려견을 부르면서 별다른 마찰은 빚어지지 않았으나, 강아지를 무서워하거나 다가오는 것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는 행인들은 불편함을 표했다. 직장인 임승준(34)씨는 “이어폰을 끼고 러닝을 하던 중 뒤늦게 개가 따라오고 있는 걸 보고 놀라서 넘어진 적도 있었다”며 “견주에게 항의했지만, ‘우리 개는 안 문다’며 적반하장식으로 나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시민 오모(20대)씨는 “목줄을 착용시킨 상태로 왔다가 공원처럼 넓은 곳에선 풀어주는 견주가 다반사”라며 “신고를 해보려고도 했으나, 동영상 찍고 누구인지 알아야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말에 결국 산책 장소를 바꿨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전국 오프리쉬 신고 중 실제 과태료가 부과

된 건수는 ▲2022년 546건 중 118건(21.6%) ▲2023년 622건 중 114건(18.3%) ▲2024년 891건 중 150건(16.8%)에 그쳤다. 광주 5개 자치구가 지난 5년(2021~2025년)간 부과한 과태료 건수도 ▲동구 11건 ▲서구 7건 ▲남구 3건 ▲북구 19건 ▲광산구 6건 등 1년에 10건도 되지 않는 실정이라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 한 자치구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하루에 1~2건 정도 접수되지만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현장 적발과 당사자 인적사항 확보가 필요하다”며 “신고가 들어와도 대상자가 현장을 떠난 경우가 많고 경찰을 통해 인적사항이 파악돼야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정은 전남대학교 동물자원학부 교수는 “울타리 없는 공간에서 목줄 없이 반려견을 풀어놓는 행위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며 “주변에 사람이 없거나 다른 이용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등 기본적인 펫티켓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상 기자

‘해든이 사건’ 오는 23일 선고...재판부 판단은?

검찰, 모 무기징역·父 징역 10년 구형
결심 후에도 엄벌 진정·탄원서 잇따라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해든이(가명) 사건’의 부모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가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된 A(30대·여)씨와 B(30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연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전 11시43분께 여수시 소재 자택에서 아들을 목욕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학대 행위를 방치하고 이 사건의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겐 무기징역을, B씨에 대해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해든이 사건을 수사했던 정아를 검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해 “그간 많은 사체를 봤지만, 이 사건 만큼 가슴 아픈 건 없었다”며 “철제 검시대 위에서야 비로소 심을 얻은 아기의 표정은 흠뻑 속과 달리 평온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법정을 가득 채운 방청객들로

부터 공감을 샀고, 결심 이후에도 엄벌 진정·탄원서 제출이 잇따르는 중이다. 정확한 집계는 어렵지만, 결심 이후부터 이날까지 25일 동안 하루에 수십건의 진정서와 탄원서가 제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선고 때까지 1천건이 넘는 서류가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선고 당일 순천지원 일대에서 결심 때처럼 추모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결심 당시 아동학대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전국민들이 모였다는 ‘해든이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일동은 “정인이 사건 이후 5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건 없다”며 “숨방망이 같은 처벌은 또 다른 아이를 죽이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인재영 기자

‘2명 순직’ 완도 냉동창고 화재 합동조사

소방청·민간 등 30명 규모 조사단 꾸려
최근 완도 한 냉동창고 화재로 소방대원 2명이 순직한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민·관 합동조사단이 20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소방청은 분청과 전남소방본부,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순직사고소방합동조사단’이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조사활동을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합동조사단에는 현장 소방대원은 물론 소방노조 관계자도 들어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고 원인 규명 작업을 함께 한다. 조사단은 전체 30명가량으로 꾸려지며 단장은 소방청 기획조정관이 맡는다. 조사단은 화재 원인, 순직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화재사고 현장에 투입됐던 다른 대원들의 의견도 청취한다.

다만, 이들 대원의 심리상태를 살펴 가며 탄력적으로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앞서 지난 12일 완도군 냉장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출동했다. 고(故) 박승원 소방경·노태영 소방교는 인명구조 작업을 한 뒤 내부로 재진입했다가 거세진 화염에 고립됐고, 동료들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청 관계자는 “20일부터 시작하는 합동 조사는 필요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면서 “최선을 다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난 18일 광주 남구 주월동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승합차와 충돌 후 전신주를 들이받아 관계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광주남부소방서 제공>

승합차에 들이받힌 시내버스 전신주 ‘왕’...17명 부상

광주 한 도로에서 승합차에 들이받힌 시내버스가 전신주를 충격해 1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50분께 남구 주월동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승합차가 시내버스 왼쪽 옆면 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의 여파로 뒤편에 나간 시내버스는 인근 전신주에 부딪혔다.

이때 사고로 버스 승객 16명과 승합차 운전자 1명 등 총 17명이 경상 피해를 입었다. 이 중 버스 승객 14명은 병원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승합차와 시내버스 운전자 모두 음주·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승합차가 차선을 바꾸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형우 기자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그린 알로에